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부국장

## ‘안전한 일자리’ 감별법



### ‘가짜 3.3×일용직×파견’

최근 급증하는 일자리 공식이다. 온라인에서 ‘알바’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일자리 상당수가 이런 모습이다. 의심스럽다면 검색창에 ‘물류센터 알바’라고 입력해 보자. 거의 모든 단어에 파워링크(검색창 최상위 노출광고)를 장악한 쿠팡이 이번에도 가장 먼저 뜰 것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집 근처 쿠팡알바 모집! 원하는 날 사전 신청 OK! 가성비 꿀알바, 1분 간편 지원’ 클릭하는 순간 입사지원서 입력 칸이 나온다.

“이력서 없이 바로 지원하세요”라는 안내문구 아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사는 곳을 적도록 한다. 선택사항으로 출생연도와 근무를 시작하고 싶은 날짜를 묻는다. 입력을 완료하면 “채용팀에서 곧 연락드릴게요”라는 문구를 끝으로 이 사이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인력파견업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쿠팡로지스틱스 입사지원서에는 ‘인재

플 등록용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있다. 작성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2년간 각종 채용 알림 발송을 위한 인재풀에 등록하기 목적이라고만 알릴 뿐 해당 고용주가 누구인지, 어떤 회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조금 있으면 제공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로 '쿠팡로지스틱스 \*\*캠프 채용팀'으로 적힌 발신자가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보내온다. 이때 희망 근무 일자(복수선택 가능)를 묻는다. 주간(10~15시)은 전야에, 야간(18시~01시)이나 심야(01시~09시)는 당일 오전에 근무 여부가 결정된다. 심야근무를 희망했더니 바로 출근하라고 한다.

## 1분 안에 생기는 일자리? 위장계약 실태

정말로 '1분'이면 일자리가 생긴다니! 그런데 놀라워할 필요는 없다. 대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쿠팡과 동업자가 된 셈이다. '쿠팡로지스틱스 \*\*캠프 채용팀'의 실체는 인력공급 업무를 하는 위탁업체다.

이런 사실은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로지스틱스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531곳을 전수조사해 노동자 4만 948명이 고용·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물론 쿠팡은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기도 한다. 쿠팡은 이들에게 안전교육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직접 한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물류배송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직접고용 대신 간접고용을 택했고, 인력을 공급하는 파견업체들은 노동시장의 최신 트렌드인 '3.3(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고용'을 따라갔다. 이렇게 완성된 공식이 '가짜 3.3×일용직×파견'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이후 고용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때서야 쿠팡은 인력 파견업체에 맡겼던 헬퍼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5,20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1,300명도 연내 전환해 총 6,500명을 직접 고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재보험 미가입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우려가 해소되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자 스스로 '안전한 일자리'를 감별해야 하는 세상

'가짜 3.3×일용직×파견' 공식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고 배송하는 물류·유통기업의 관행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노동부가 한창 근로감독을 벌일 때도 '물류센터 알바' 관련 취재를 해보면 버젓이 "개인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해 매월 10일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쓴 근로계약을 목격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 사업장을 감독하기에는 근로감독관 역량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말도 한다. '가짜 3.3×일용직×파견'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퍼져서 근로감독으로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일종의 고백이다.

'3.3 위장고용'의 시대, 그나마 산재보상이라도 가능한, 안전한 일자리 감별법은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이력을 노동자가 확인하고, 미가입 사업장은 걸러내는 원초적인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됐다. 산재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